

## “뮤직T랜드(뮤직트랜드)”를 찾아서

### 1.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그 설레는 집필의 시작

처음 2022 개정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집필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 속에는 설렘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사람은 노래하고 연주하며, 음악을 듣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 삶의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음악이 가진 여러 가치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음악 교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음악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사회적 성장을 이끌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K-POP을 중심으로 우리 음악 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인공지능(AI)과 DAW(Digital Audio Workstation)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음악 활동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 교육이 단순히 노래 부르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예술적·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정선  
한민고등학교 교사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연주·감상·창작’ 세 영역의 균형 있는 통합입니다. 특히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생활화’를 통해 음악을 삶과 연결하고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작’ 영역이 강화되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창작물(음악 작품)을 만들며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교육과정은 현장 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작곡 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음악적 언어로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중심의 창작’을 어떻게 교과서에 구현할지가 집필진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작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림 1 — 실제 아침나라 교과서 중학교 음악, 고등학교 음악

## 2. 집필실의 에피소드: “이 노래,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중고등 음악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수록곡 하나를 선정할 때마다 벌어졌던 치열한 ‘끝장 토론’입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과 수업 진행이 쉬운 음악 위주의 선곡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되, 학생의 성장을 돕는 균형 잡힌 제재곡을 선별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공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케이-아트 팝(K-Art Pop) 장르로 새롭게 거듭난 김

효근 작곡가의 ‘첫사랑’처럼 한국적 정서와 예술적 고유성을 두루 갖춘 곡들을 선정했을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작 단원 구성 역시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인공 지능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음악 수업이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적용해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과서로 음악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DAW를 활용해 국악의 장단과 서양 음악의 음계를 융합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국악을 낯설게 느끼는 학생들이 우리 음악의 전통적인 장단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용기를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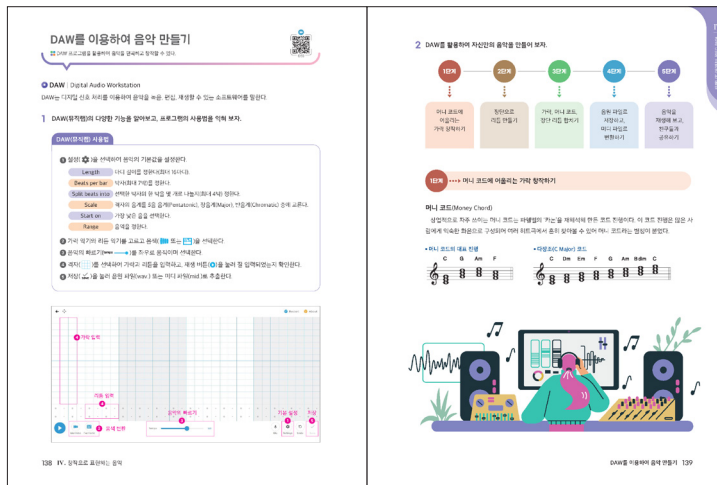


그림 2 — 실제 교과서 중 한 페이지(아침나라 교과서 고등학교 음악)

### 3. 혼자가 아닌 ‘함께’의 힘: 음악 교사들의 놀이터, ‘뮤직랜드’

서양 음악, 국악 등 다양한 음악을 한 교과서에 담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지역도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른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집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치열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교과서를 위해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교과서 집필 과정 중 소통과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연구의 열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집필의 원동력에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 ‘뮤직T랜드(뮤직트랜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림 3 — 뮤직T랜드(뮤직트랜드) 단체와 우측 홍정선 선생님

‘뮤직T랜드(뮤직트랜드)’는 음악 교사들의 자발적인 소통을 위해 시작된 연구 단체입니다. 2020년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으로 기존의 수업 방식이 흔들리던 시기에 새로운 길을 찾고자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7명(경기 홍정선·김서연·김범수, 충남 노혜원, 서울 전상진, 부산 전진우, 제주 이지영)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은 달랐지만 음악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하나였습니다.

2021년부터 총 6호의 웹진을 발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뮤직T랜드’는 전국 많은 동료 교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웹진에는 음악 수업 사례를 비롯해 학교 안팎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교사들의 일상 등을 진솔하게 담아 왔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모인 선생님 이외에도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된 선생님들의 공감과 고민은 단순한 소통에서 머물지 않고, 고민을 반영한 수업 자료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감상 수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한 『Rubato! 음악 감상 카드』는 2024년 11월 완성된 이후 전국 교실로 확산되며 궁




그림 4 — 실제 『Rubato! 음악 감상 카드』를 활용하여 감상하는 모습

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음악의 본질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하여 100여 명의 교사와 함께 연주·감상·창작의 실제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류에 대한 교사들의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악 교사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악 교과외의 경우 교사 혼자 모든 학생의 수업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뮤직T랜드(뮤직트랜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교사들에게 거창한 수업적 성과나 목표보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자'라는 따뜻한 다짐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열정으로 시작된 이 작은 모임은 이제 전국의 음악 교사들을 잇는 수업 공동체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활동은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 4. 맺음말: 다시, 음악의 즐거움으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변화는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학생들이 음악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창작 영역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교과서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뮤직T랜드'와 같은 수업 공동체와 함께라면 교실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과서에 담긴 한 줄의 문장, 한 마디의 음표가 교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선율이 되기를 꿈꿉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를 선택한 음악 교사들이 있는 한, 우리 이들의 음악 시간은 앞으로도 언제나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따뜻한 배움의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 필자 소개

음악교육매거진 뮤직트랜드 편집장, 2015 개정 『음악과 융합』 교과서 대표 집필진, 2022 개정 교과서 『중학교 음악 1/2』, 『고등학교 음악』 집필

#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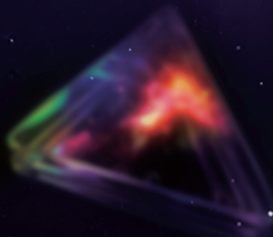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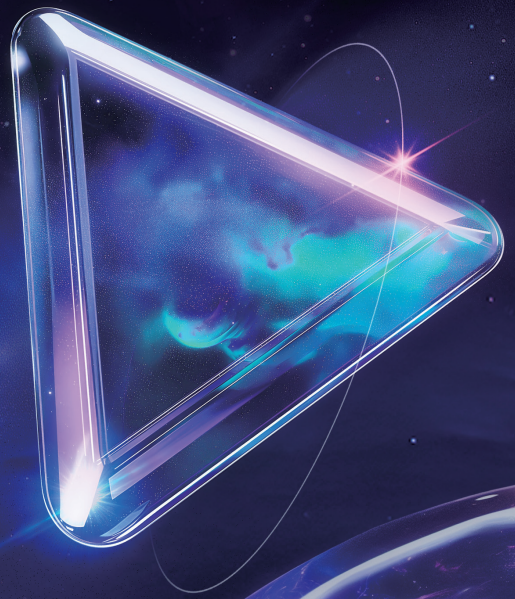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8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2025년 교과서 발행 부수 기준

Mirae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티치  
[www.m-teacher.co.kr](http://www.m-teacher.co.kr)

